

광주시향 새 지휘자 크리스티안 루드비히 인터뷰

“청중에 눈높이 맞춰 다양한 음악 들려주고 싶다”



크리스티안 루드비히는

- 1978년 한국인 어머니와 독일인 아버지 사이 출생
독일 민화인 국립음대 지휘과 졸업
영국 로얄 아카데미 음악원 석사 과정 졸업
독일 슈투트가르트 필하모닉 등 다수 객원 지휘
현 독일 쾰른 체임버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새로운 수장으로 위촉된 크리스티안 루드비히(33)가 15일 광주문화회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한국인 어머니와 독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특히 쾰른 음대 학장을 역임한 아버지 권터 루드비히는 지난 1985년 광주시향과 협연 무대를 진행한 적도 있어 광주와는 인연도 있다.

시키는 게 지휘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듯, 고리들을 연결시키는 작업이다.

-어제 단원들과 첫 미팅 때 무슨 말을 했다. 단원들과 지휘자의 의견 교환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는데.

▲광주와 광주시민들의 오픈 마인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무엇보다 함께 만들어가는 음악을 강조했다. 지휘자의 확고한 리더십이 바탕이 되어야 하겠지만 좋은 음악은 단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한국말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듣는 것은 가능하다. 앞으로 더 노력해 의견 교환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역 클래식 팬들은 당신을 통해 어떤 음악을 듣게 될지 기대가 높다.

▲오케스트라 연주 레퍼토리는 청중이 듣고 싶어하는 것,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싶어하는 것, 지휘자가 연주하고 싶어하는 것 등 다양하다. 여러 레퍼토리를 연주하지만 차이코프스키, 드보르작, 멘델스존 등 낭만 음악을 주로 연주했다. 하지만 모차르트와 베토벤, 현대음악까지 특정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획에 따라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고 싶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클래식 레퍼토리의 기본 그림들이 있지만 사고를 확장해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고 싶다.

-지휘 이외에 어떤 악기를 다루나. 또 음악 이외에 좋아하는 건 무엇인가.

▲엄마도 성악을 전공한 음악가족이어서 엄마 품에서 모곡어를 배우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일찍 음악을 듣고 배울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었다.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고, 바이올린도 어렸을 때 배웠다. 스무살까지 바이올린에 주력하다 손에 부상을 입어서 지휘로 방향을 틀었다. 음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만 살사 댄스 추는 게 좋아하고 요리하는 것도 즐긴다.

-최근 2년간 광주시향은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 신임지휘자에 대한 기대도 높다.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청중들은 공연장에서 에너지와 생명을 창출한다. 또 감정과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오케스트라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힘이다. 광주시민들도 열심히 참여해 주고, 오늘 와준 언론들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그는 4월 1일 취임연주회를 가지며 2년간 지휘봉을 잡는다. 쾰른 체임버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와 겸임하고 광주에서는 년 12회 연주회를 진행하게 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살사댄스 좋아하고 요리 즐겨

4월1일 첫 연주 年 12회 공연



-광주시향을 맡게 된 소감과 광주에 대한 인상은 어떤가.

▲우선 나를 초청해준 광주시에 감사한다. 전임 구자범 지휘자가 상당한 음악적 발전을 이루었다는 말을 들었다. 시의 적극적인 도움도 있고, 시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광주시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싶다. 특히 광주시향이 광주 문화발전의 중심부에 서도록 노력하겠다. 광주는 다이나믹하고 생동감있는 도시라는 느낌을 받았다. 특히 어머니 고향이 전주인데 광주와 가까운 곳이라 고향같은 이미지도 있다.

-시민과 눈높이를 맞춘 광주시향 연주회는 인기가 많았었다.

▲광주시향의 시도는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 내가 상임지휘자로 활동중인 쾰른 체임버오케스트라 역시 어린이 콘서트와 열린 리허설 등 대중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열려 있는 음악을 경험하게 해왔다. 이런 프로그램은 광주에서도 시도할 수 있을 것 같다. 청중이 함께 음악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 청중은 음악적 에너지를 극대화시킨다.

-당신이 생각하는 지휘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음악이 어디로 가야하는지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이다. 또 하나는 각 파트파트의 음악적 개성을 고려하면서 개별화되지 않고 연결 시키는 것, 조화

불교 문화·산업의 모든 것

25일~3월1일 '국제불교문화박람회'

불교 문화와 불교 관련 상품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판매하는 대규모 국제박람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불교신문 광주전남지사, BBS 광주불교방송, (주)엑스퍼트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1 국제불교문화산업박람회'가 오는 25일부터 3월1일까지 5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불교 산업 관련 업체는 물론 백양사·송광사·화엄사 등 호남지역 6대 본사와 광주불교사암연합회, 광주전남전법단 등 신행단체가 대거 참여하는 문화축제로 치러진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외 불교문화를 소개하고 불교관련 상품을 전시·판매하는 문화산업전시박람회로 한국불교의 역사, 특히 호남지역 대표 사찰의 전통 불교문화와 현재 모습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

전시실의 상설전시관에서는 불화소품 전시회와 천연염색 의상전시회 등을 선보이며 상설무대로 법고 시연, 찬불가 공연,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영산재 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행사기간 부대행사로 사찰 콘스



'2011 국제불교문화산업박람회'가 오는 25일부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박람회 모습. <국제불교문화산업박람회 사무국 제공>

님들의 법문 강연, 해와 불교문화단체 공연도 이어진다.

송광사 주지 영조스님은 "국제불교문화산업박람회는 전통과 예술이 살아 숨 쉬는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적인 박람회"라며 "사찰과 신행단체, 불교관련 업체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포교와 지역발전에 힘을 합하는 신명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 062-383-6322.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천수경 해설서 '천수경의 현대적 이해' 출간

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인 '천수경'을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불교이해서 '천수경의 현대적 이해'(에코미디어 펴냄)가 출간됐다.

천수경은 근본불교사상은 물론 밀교 사상과 선불교 사상을 오묘하게 담고 있는 경전으로 대승불교의 기본적인 수행인 율행(기도, 발원, 귀의, 송주, 찬탄, 참회)과 불자들이 실천해야 할 계율인 오륜(예경, 공양, 참화, 발원, 지송문)을 제시하고 있다.

지명스님과 무진스님의 공저로 펴낸 책은 천수경 구절

을 대중적인 이해까지 낱낱이 풀어 설명하고 있어 불교신자는 물론 불교를 알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교의 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책을 쓴 지명스님은 화산 학천사 주지로 화산불교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공저자인 무진스님은 정토서원 원장으로 인터넷불교신문 '바르고맑은세상'의 발행인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서 돌 깎아 만든 6세기 고분 발견

삼국시대 증석봉토분 3기 확인

무덤 부분에 돌을 깎아 입힌 6세기 무덤 삼국시대의 이른바 증석봉토분(甕石封土墳) 3기가 광주에서 확인됐다.

매장문화재 전문조사기관인 대한문화유산연구센터(원장 이영철)는 남구 양과동 행림마을~시경계간 도로경사 구간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파과가 극심한 증석 고분들을 발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고분은 공중에서 내려다본 평면 형태를 기준으로 할 때 원형과 방형, 그리고 사다리형의 3가지로 드러났다. 이 중 2~3호분은 봉토 대부분이 파괴됐지만 내부에서 돌을 깎아 만든 토기류가 발견됐다.



돌을 깎아 만든 6세기 고분.

평면 원형인 1호분 역시 봉토 절반 정도가 훼손됐지만 그 아래에 시신을 묻는 공간인 매장주체시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조사단은 말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Ariarang House restaurant. Includes text: '호남 제일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이런모임은 어디가 좋을까?', '2인실부터 대형 연회장 까지 다양한 접객실과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빔 프로젝트, 음향 설비 완비', '상견례, 회갑, 고회연 등 가족모임과 회식, 설명회 등', '각종 모임에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부담없는 가격의 내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와인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oojang.com'.

Advertisement for movie theaters. Includes logos for moviehelic, MEGABOX, and cinus. Lists movies and showtimes for Columbus Cinema, Megabox, and Cinus. Includes contact info: 'www.cinus.co.kr', 'www.megabox.co.kr', 'www.cinus.co.kr'.